



글과 그림 주다솔



선생님이 팔을 책상에 내리다가 팔꿈치로 토마토를 꾹 눌러서
토마토가 펑 터져 버렸다.

우연히 이것을 본 개미 토토는 토마토를 먹으러 온거야.
토마토를 맛있게 먹은 토토는 창문으로 나가서 편의점으로 갔어.



편의점 문 앞에서 한 남자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
마시멜로를 떨어트리는 걸 봤어.
토토는 친구 개미들을 불러모아
마시멜로를 갖고 하얗고 폭신폭신한 차를 만들었어.



토토는 개미들끼리 그 차를 타고
골목을 지나서....
횡단보도를 건너서...
굴 안으로...쏙~!

기다리고 있던 다른 개미들과 함께... 토토는
다 함께 마시멜로를 맛있게 먹었다.

